

독자와 함께 웃고 울고... 광주일보 58년은 '호남 현대사'

'격동의 시대' 한국 민주화·지역발전의 선봉으로



1980년 통폐합된 광주일보 창간호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 창간호

광주일보 58년의 발자취는 독자와 함께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였다. 민족 상잔의 전후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2년 이 지역 선각 언론인들에 의해 탄생한 광주일보는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등 가시적 같은 현대사를 헤쳐오면서 올곧은 필봉으로 민주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와 전란의 와중인 1952년 2월10일 창간했으며,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이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일보 창간일인 4월20일은 전신인 전남일보가 법인 설립 등기를 받은 날이다.

옛 전남일보+옛 전남매일
1980년 통폐합 광주일보로
정론직필·수많은 특종보도
지역민들의 목소리 대변
문화사업 '삶의 질' 향상도

포에 경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운동, 5·18 묘지 민주나무 헌수운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이 앞장서고 있다.

광주일보는 호남예술제,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수많은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통해 다방면의 지역인재들을 길러내고 호남인들의 문화 감동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시가지적절한 여론 수렴과 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넷 패널로 선정, 핫이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등 독자와 함께 뛰는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인구감소와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국가적 추세를 지역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2007년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이주 여성의 인권 및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중 시리즈 '은누리안 리포트'는 제10회 한국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또 2008년 한 해 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책을 내놓은 연재물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도 한국앰네스티 언론상과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정론직필 특종보도로 지역 역사를 쓰다
58년간 정론·직필을 바탕으로 호남인과 함께해 온 광주일보는 전쟁과 혁명, 독재와 유신, 국민의 정부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특종보도로 지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는 창간호 1면 톱 기사로 휴전회담을 게재하고, 지방신문 중 유일하게 이승만 독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해 지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또 1960년 4월 19일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교문을 차고 나온 4·19 의거를 상세히 보도하는가 하면 언론암흑기인 70년대 유신시대에도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하고, 사실보도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1980년 5·18 민중항쟁 때는 10일 동안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4일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민주시민의 긍지-무등산은 알고 있다', '광주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시민의 패배한 절규를 대변했다.

하지만, 5·18 당시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인 진실보도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두 신문이 '광주일보'로 통폐합된 이후 1989년 '5·18-그 후 9년'이란 5·18 첫 진상보도를 통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다양한 기획시리즈를 통해 5·18의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고질적인 지역비리 척결에 주력했다. 1995년 시작된 민선 시대 이후 선거직 단체장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입찰프로그램을 조작,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보도해 입찰프로그램이 전면 교체 되도록 했으며,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관용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하는 등 고위 공직사회에 만연한 비리 척결에 앞장섰다.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에는 호의발행 등을 통해 지역민과 슬픔을 함께했으며, 다양하고 특집기사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겼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1절' 기념을 위해 1954년 시작된 '광일단축 마라톤대회'는 1997년까지 이어지다가 광주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2004년 전국마라톤대회로 전국화해 마라톤 중흥과 사회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3월1일 열린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한 1만여명의 건각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 언론 선도하며 100년 향해 꾀꾀하게”

■ 광주일보에 대한 지역 인사들의 기대

‘권력과 성역’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광주일보는 58년 동안 광주·전남지역민과 함께 해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창간된 광주일보는 현대사의 굴곡을 지나오며 지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가꿔왔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적박한 지역인론 환경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에 유익한 정보와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는 데 노력해왔다. 지역민들은 그러한 광주일보를 기억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고민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한계도 있었다. 잠시나마 권력의 억압에 눌려 지역민의 아픔을 목격하고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민

의 사랑과 관심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일보는 2년 뒤 60살을 맞이할 만큼 성장했다.

지금 광주·전남은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국면에 있다. 지역 중추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력 및 지도력 부재,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산적한 문제 속에 광주일보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윤장현(61)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은 “지역 내 신문이 남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소비자인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통 있는 신문인 광주일보의 역사적인 소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익숙한 것들이 아닌 새로운 시도,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일보가 지역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익숙한 것'과 '성역'에 대해 과감히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오재일(58)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광주일보가 재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갖춰 꾀꾀하게 100년, 200년을 갔으면 한다”며 “서울과 중앙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 본연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살을 앞둔 광주일보가 과거의 자성을 근간으로 앞으로 광주일보만의 색채를 찾아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광훈(44)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은 “중앙지가 아닌 지역지, 그 중에서도 전통 있는 광주일보를 지역민들이 많이 읽었으면 한다”면서 “지방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특화된 주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8주년을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우윤근
광양시장 이성용
광양시의회의장 장명완
전라남도의원 김재우
광양만권자유구역청장 최종만
광양권부두관리공단이사장 이상조
광양경찰서장 우형호
광양소방서장 박달호
광양제철소장 김준식
광양교육청교육장 정균래
농업증앙회광양시지부장 배영훈
동광양농협조합장 서정태
광양항운노조위원장 서성기
광양기업황재우

광양시
GWANGYANG-SI